

##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사

### <<한국어>>

아르놀도 안드레(Arnoldo André) 코스타리카 외교장관님,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Reina) 온두라스 외교장관님,  
안토니오 알몬테(Antonio Almonte)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  
광물부 장관님,  
호세 앙헬 로페스(José Ángel López) 과테말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님,  
루이스 바야스(Luis Vayas) 에콰도르 외교차관님,  
카를리노 벨라스케스(Carlino Velázquez) 파라과이 공공사업  
통신부 차관님,  
조나단 파브리시오 메나(Jonathan Fabrizio Mena)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님,  
페르난두 미키비치(Fernando Mitkiewicz) 브라질 경제부  
전자정부 차관보님,  
아드리아나 렌돈(Adriana Rendón) 콜롬비아 기업연합회  
부회장님,  
존경하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으며,  
콜롬비아 등 우방국들의 군대와 멕시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물자가 도착했던 항구였습니다.

전후에는 UNDP의 지원 하에 부산항이 현대식 항구로 거듭나면서 오늘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5대 항만인 부산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만약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도시, 부산에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11개국에서 오신 중남미 장관님과 함께 한국과 중남미의 미래협력을 논하는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페인어>>

내외 귀빈 여러분,

금년은 한-중남미 수교 60주년의 해입니다.

1962년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은 수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치열했던 동서냉전기에 우방국 확보 경쟁의 일환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머지않아 중남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전합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자동차 수출이었습니다.

1976년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 차인 현대 포니 5대가 최초로 수출된 곳은 미국이 아닌 에콰도르였습니다.

포니는 해발 2,800미터의 키토에서부터 중남미에 <꼬레아>를 알렸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이후 한-중남미 관계는 이념적 우방관계를 넘어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1980년대 섬유, 1990년대 건설과 인프라 분야로 한국의 중남미 투자 진출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96년과 97년,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를 순방하며 한국과 중남미의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교 60주년이자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대전환기인 지금, 한국과 중남미는 과거 특별했던 유대관계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의 동반자로서 미래를 함께 구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 값지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되어온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한국의 중남미 관련 최고위급 이벤트입니다.

그간 포럼은 스마트시티, 보건, 정부혁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 금년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자원,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인프라, 그린산업, 농업 분야 등에서 미래  
협력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최빈국에서 산업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자상거래 성장의  
선두주자이자, 그린 에너지와 식량의 보고인 중남미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미래 상생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가 ‘Ser la media  
naranja’<sup>1)</sup>와 같은 관계임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1)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반쪽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키로 하고, 작년 6월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자유와 번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부산은 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보유한 곳입니다.

한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 같은 노력에 중남미 국가들이 지지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한국어>>

내외 귀빈 여러분,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Korea's Latin American Dream을 통해 중남미와 함께 상생과 번영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남미가 함께 꾸는 꿈에 불가능이란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끝/